

그래서 이번년도, 저는 잘 출몰해요

가대대로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대가 없으면 좀 삶이 허락하지 않나. 타로를 봤다. 올해 한 번쯤은 보고 싶었다. 선생님, 삶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번 년도는 좀 어떠려나요. 제가 올해 마음수여 서요.

"9월까지 편디다 보면 그 후면 줄은 잃어 찾아올 거 같아요.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건 심진 앞엔데요. 조금만 버티고 또 아직 놓지 않고 잡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풀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번 년도 좋은 내일이 있다고 했다

SKT 발달 방송국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건희. 할만 스타벅스로 불러내어 다들 타로를 배설라 하니 보자기를 들고 책속 카드를 꺼내며 설명해준다. 타로는 신이 직적인 경우의 수라고 해요. 인생도 인과관계가 있어서 타로 카드를 읽는 것도 카드짜리 관계를 읽는 거죠. 타로요? 예전 타로 카페에서 할 때였는데 몇 번 함아췄죠. 근데 알면서도 하길래 돈도 더 모으면서 하다가 자력종까지 판 거죠. 뭐.

"원래는 예술을 했었지?"

"그렇죠. 중국에서 음악 생활을 하다 한국에 다시 왔죠. 미술을 하고 싶었고, 음악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못 하게 된 건..."

"집안 반대죠, 뭐. 그래서 수도권 대학 갈 수 있는데 대원으로 내려왔죠. 아버지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 음악고 재 야구부였고 또 음악도 좋아했었던 거 같은데 아마 핵 불기에 더 예술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했죠. 나는 예술가인가, 내가 하는 건 예술인가,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요. 예술이 꼭 어렵고 진지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 예술을 살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 예술을 산다는 건 진짜 작품을 산다는 것만 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제 작품을 누군가 사지 않는다고 그게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은 그저 표현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냐는 다음 문제고요. 내 작품 아무도 안 산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거죠."

건희는 대학에서 아티스트를 모아 팀을 결성하기도 했고 음악을 만들며 소속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글을 써 단편 오음집에 작품을 올리기도 했다. 돈을 벌며 재력을 비축할 때가 있고 돈을 쓰고 돈을 쓰며 작품 활동을 할 때가 있다. 실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 20kg가 빠지기도 한다. 안 먹고, 안 자고. 그러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작품이 나온다. 1년 전부터 중세에서 음반도 하나 나올 계획이다. 예술인의 장엄적인 삶. 아찔한 일을 하고 밤에는 작업을 하는 삶이다.

"그런 삶이 계획적으로 많이 지치진 않아?"

"그렇긴 하죠. 하지만 내 삶에 무엇이 주류고 무엇이 보조적인 것이냐 묻는다면 저는 SKT 매니저가 보조적인 것이고 작품 활동이 주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깝 싶지 않죠."

"정말 심한 맘은 싫어네. 그럼 너는 올해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타로 볼 수 있어?"

"타로를 볼 때 꼭 원가를 받거든요. 타로는 내 운을 사용해서 내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운을 쓸 손 없으니 대신 복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운을 스스로 점 치면 내 운을 내가 써 버리는 거예요. 노력 10을 들여 미룰 수 있는 걸 내 운을 줌으로 노력 20을 쓰는 거죠."



이건희(26세)

이 남자의 올해 행방은 어찌 될 지가 내 마음수보다 더 흥미진진해지면 되려 마십다. 타로를 스스로 보지 않는 건 불운을 겪은 거란다. 내 운을 사용해서 내 운력을 점친다는 것. 어쩌면 행운도 개인마다 할 당량이 있는 걸까?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렇게 불운한 삶을 사는 걸지도 모른다. 좋은 작품이 타치는 데에 인생의 행운을 다 끌어버린 거지. 간혹도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선생님. 그럼 저는 이번 년도 큰 거 하나 기다려도 되는 건-니까? 예? 타로는 그냥 신이 보여주는 최고의 결과물 뿐이려고요? 아하... 일단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